

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손해보험 중심으로—



최 병 수

(전보험공사 부사장 · 보험학회이사)

1. 시련기의 손해보험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70년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제11위의 위치로 부상, 세계인이 주시하는 보험시장이 되면서 외국보험회사들이 다투어 우리나라 보험시장으로 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한 최근의 세계적인 국제화물결의 영향은 우리의 개방화를 촉진시켰고, 특히 미국을 위시한 시장개방압력과 무역보복조치 위협속에서 우리나라는 대미무역수출의 감소가능성을 줄이고 무역량확장의 방향을 택하기 위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장을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순조로운 확대성장을 하여온 우리나라 손해보험 시장도 이제 점차 엄한 시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진출희망의 배경

위와같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국제보험정세의 조류와 경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또한 미국과 같이 광대한 자국보험시장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선진국의 보험사업자가 세계시장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협소한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정부의 규제위주적인 보험정책속에서 경쟁의 시련없이 성장해왔기 때문에 외형면에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국제경쟁력이나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의 효율적인 발전은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내실을 다지지 못한 성장과정중에서, 80년도 이후부터 경제전반에 파급된 경영자유화정책은 보험자의 자율적 경영과 자유경쟁의 폭을 크게 허용해 왔으나 보험산업에서의 자율화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리하여 손해보험사업이 가계성보험과 같은 잠재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기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경제의 안정성장화과 더불어 그 신장물이 둔화되고 한편으로는 손해보험의 중심종목인 자동차보험의 불안정한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증가 및 낮은 금리수준에 수반되는 운용자산 이윤의 저하 등이 보험경영에 커다란 부담이 되면서 그 발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즉 외형면에서의 성장은 인상적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반드시 해석될 수는 없

문제점과 대책

는 것이다. 각종 공제등 유사보험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보험사업자가 보험 수요자의 needs(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급성장하는 경제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보험산업이 상호교차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고성장 잠재력이 외국보험사업자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비치게된 것이 분명하다.

3. 문제의 제기

외국보험사업자가 국내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가. 기존 국내진출외국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의 움직임

이미 국내에 진출한 2개손보사(AHA, CIGNA)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보면 1985년까지는 1% - 1.1%선에 머물러 있던 것이 86년도에 이르러 1.3%로 증가하였고 그 실적도 1982년도의 66억원에서 1986년도에 153억원으로, 1982년도 기준으로 230%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국내손해보험회사의 189%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 양 회사는 1968년부터 국내시장에 진출한 이래 1985년에 이르러 손해보험 전종목에 걸쳐 영업할 수 있게 되었고 1986년 8월에 국내보험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화재보험 pool에 참여하면서 그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화재보험 pool은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으나 손해보험시장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보험사업자는 이 높은 수익 사업 참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외국사는 이제 그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를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신규 외국보험회사 진출압력의 가중

이미 진출한 회사 이외에 구라파제국 및 일본 등 새로이 진출을 희망하는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서두르고 있다. 이들이 호혜평등원칙에 따라 진출하고자 할 경우 우리정부가 폐쇄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없고 또 그들에 대한 개방을 무한히 지연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다. 규제행정예 의한 경쟁력의 취약

정부의 행정지도는 우리보험시장을 규제시장(c-controlled market)화 함으로써 경쟁력의 약화현상을 초래하였고 외국사들은 이 측면에서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갖도록 한것이다. 보험시장이 이와같이 관리에 의존하게 될 때 경쟁의 필요성은 감소되고 기술혁신이나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marketing을 위한 incentive의 부재현상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편으로는 marketing에서의 우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4. 외국사 진출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저해요인

가.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초래

세계보험시장의 0.89%의 점유율을 가진 협소한 국내보험시장에 대형외국보험사업자가 진출함에 따라 과당경쟁의 유발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나. 국내보험시장 성장저해

외국사의 신규진출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는 새로운 추가수요가 창출되지 않으면 기존시장은 침식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취약한 판매조직과 낙후된 보험기술등으로 말미암아 기존국내시장의 영역이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보험체질이 빈약한 현 단계에서 그 성장은 저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 경영효율의 악화와 담보력저하

보험경영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사와의 치열한 경쟁이 유도될 경우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은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르는 담보력의 상대적 저하도 예상되지 않을 수 없다.

5. 대책

이상과 같은 負의요인(마이너스요인)이 상존하고 수용태세가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외국보험사업자가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하여 그 영향을 극소화 시키느냐의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시장을 개방하는 입장에서의 기본전략은 체질을 강인하게 단련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측면에서의 대책으로 대외경쟁력의 강화와 경영체질의 개선을 들 수 있다.

가. 대외경쟁력의 약화

1) 상품내용의 다양화와 국산화

산업의 발전과 보험인식 향상에 따르는 다양성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의 보험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영문증권의 사용은 선박, 적하보험등 해상보험과 같이 국제거래상 불가피한 보험종목에 한정시키고 가급적 국문증권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보험의 대중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쟁원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품면에 있어서의 확실성이다. 따라서 이 확실성으로부터 독자성의 확보가 보험업계의 중요한 과제이다.

2) 가격수준의 합리화

대중보험에 있어서의 협정요율체제는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경쟁의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는 등 합리적인 요율체계를 확립하고, 보험종목별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요율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Marketing원리의 도입

첫째, 보험계약인수시의 부당한 보험료의 할인이나 대출조건부 계약인수등 비정상적인 과당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둘째, 판매기법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보험상품은 그 구조의 복잡성, 그 형태의 추상성 및 불가시성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평가에 의한 자발적 구매의욕의 발생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보험홍보를 강화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좁히고 보험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하고 보험사업의 실체와 보험상품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판단할 수 있는 홍보와 광고활동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정상적인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판매경로를 시류에 선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손보시장의 주축 판매조직은 대리점제를 위주로 하되 장기보험이나 가계보험분야는 외야조직을 활용토록 한다. 직급은 기술적 보험이나 항공보험 등 보험인수에 전문적기술을 요하는 보험종목에 한정한다.

나. 경영체질의 개선

보험경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경영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보험경영에서의 비합리적 요소를 과감히 정비하여야 한다. 즉 보험경영의 합리적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분야를 등한시하거나 경영 관리 기술없이 당국의 지도행정에 의존하는 의타적 경영자세와 인재를 소홀히 다루는 경영태도를 지양하여 전문인력육성에 적극성을 견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형경쟁의 지양

과다한 외형성장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손보사간의 자율적인 협정을 체결케하고 외형경쟁으로 인한 수지악화 회사에 대하여는 특정 제재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손보사의 평가기준을 원보험의 손해율과 경비율을 감안한 수지차로 하도록 한다.

2) 보험인수기술의 향상

보험회사의 업무부서와 영업부서가 상호협조하여 부당한 영업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수지침을 보완토록하고 보험인수 관계자의 자질을 향상, 전문화하도록 한다.

3) 위험관리제도의 도입·정착

인수물건에 대하여 자체에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 계약대상 산업체 및 여타 기업체의 시설에 대한 위험관리나 지도능력을 보유토록 한다.

1) 해외출재보험의 개선

해외출재기법을 개발하고 다양화하여 교환재보험을 확대하고 해외원보험자와의 직접거래나 신용 있는 해외재보험자와의 거래를 유지한다. 또한 우량국내물건의 보유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기자본 및 보험계약준비금을 증대케 하고, 해외보험정보의 신속한 입수·보급으로 해외불량물건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보험사업의 건전한 경영정책으로서 추구할 입장은 자율화 폭을 확대하여 국내사간의 경쟁유도와 자율촉진으로 경쟁시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기술혁신, 경영개선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국가복지증대의 기회로 활용될 것이다.

개방체제하에서의 자유화는 경쟁대상이 세계 기업으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체질개선으로 자체 추진력과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대항력(countervailing power)을 배양하여야 하며 그것이 곧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보험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㉞)